

“사례 중심 설명...글로벌 항공사 취업 준비에 큰 도움”

광주여대 항공서비스학과, 중동항공 승무원 채용설명회 해외 항공사 채용 동향·취업 전략 공유...역량 강화 지원

광주여자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가 최근 교내에서 글로벌 항공업계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동항공 객실승무원 채용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채용설명회는 해외 항공사 취업을 희망하는 재학생과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항공사 채용 동향과 객실승무원 취업 준비 전략 등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스카이엔터테인먼트 김태준 본부장이 참석해 중동지역 항공

사 채용 절차와 지원 자격, 글로벌 서비스 역량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해외 항공사 취업 준비 과정과 현장 경험을 공유하며 학생들과 소통하는 시간도 진행됐다.

특히 설명회에서는 중동 문화권 항공사가 요구하는 객실승무원의 인제상과 서비스 마인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역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이뤄졌다.

또 실제 채용 현장 영상과 객실승무원

근무 사례를 함께 소개해 학생들이 항공사 채용 분위기와 직무 특성을 보다 현실감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학생은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이 진행돼 매우 인상 깊었고, 글로벌 항공사 취업 준비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준비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됐다”고 말했다.

백선숙 항공서비스학과장은 “이번 설명회는 학생들이 글로벌 항공산업의 채용 흐름과 현장 분위기를 이해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산학 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국내외 항공사 진출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광주여자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가 최근 교내에서 글로벌 항공업계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동항공 객실승무원 채용 설명회를 열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범시민준비위, 지역 교류 협력 확대

거문도 덕촌리·추지도 목리 결연 행사 상호 방문·특산물직거래 등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범시민준비위원회가 최근 제주시 추자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추지도 섬 상생발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거문도 덕촌리와 추지도 목리 간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여수 거문도와 제주 추지도 간 상생 교류 기반을 마련하고 섬 지역 공동 발전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홍보 협력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 축제·행사 상호 방문, 특산물 홍보·직거래 교류,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동 홍보, 주민 단체 간 우호 교류 확대, 섬 환경 정화 및 해양쓰레기 저감 활동 협력,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홍보 협력 등이다.

또한 양 지역은 앞으로 실무협회를 지속 운영하며 섬 관광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 해양문화 교류 확대 등을 위한 협력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범시민준비위원회가 최근 제주시 추자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추지도 섬 상생발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거문도 덕촌리와 추지도 목리 간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이준광 삼산면 이장협의회장은 “이번 교류 사업은 남해안과 제주권을 대표하는 섬 지역 간 문화, 관광, 특산물, 주민공동체 분야 등 교류 확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보선 제주 추지도 목리 대표 이장은 “양 지역은 아름다운 해양 경관과 풍부한

수산자원, 독특한 섬 문화와 역사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며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규철 위원장은 “추지도와 거문도의 교류 사업은 단순한 방문행사를 넘어 섬과 섬이 상생 발전하는 새로운 협력모델이 될 것이다”며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와 함께 대한민국 섬 가치 확산에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범시민준비위원회는 완도군과 추지도 일원에서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홍보 캠페인을 펼치며 성공 개최 분위기를 확산해 힘을 보탤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본량농협, 원로조합원에 ‘사랑의 건강식’ 전달

삼계탕 세트·두유 등 500만원 상당...따뜻한 나눔 실천

본량농협은 최근 원로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건강식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랜 기간 농업·농촌 발전과 본량농협 성장의 기반이 되어준 원로 조합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지역사회 경로효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정상윤 본량농협 조합장을 비롯한 농협 임직원과 조합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로조합원 115명에게 삼계탕 세트와 두유 등 총 500여만원 상당의 건강식을 전달했다.

특히 임직원들이 거동이 불편한 조합원의 가정을 직접 찾아 물품을 전달하고 안부와 건강 상태를 살피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정상윤 조합장은 “본량농협은 원로조합원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에 오늘의 성



본량농협이 원로조합원들에게 ‘사랑의 건강식’을 전달하고 있다.

장을 이룰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원로 조합원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농협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4년 시작돼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 행사는 본량농협이 매년 5월을 ‘원로조합원 감사와 공경의 달’로 지정해 운영하는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 광산구는 최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의 투표 참여 분위기를 확산을 위해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투표 참여, 미래 키우는 최고 투자”

광산구, 6·3지방선거 투표율 제고 앞장

광주 광산구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의 투표 참여 분위기를 확산을 위해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양한 홍보 활동에 나섰다.

20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역 어르신과 청년층, 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의 유권자가 보다 쉽게 선거 정보를 접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 홍보와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지역 어르신들의 이용이 많은 경로당과 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선거 일정과 투표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일터 현장 노동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지역 산업단지 내 2079개 사업장에 투표 참여 협조 안내문도 발송했다.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공공청사 등

에 설치된 미디어 시설과 전광판, 도심 옥교 및 행정 개시대 등을 활용한 전방위 홍보도 이어지고 있다. 공동주택과 광주송정역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안내 방송도 진행 중이다.

온라인 홍보도 강화한다. 광산구 공식 누리소통망(SNS)과 누리집 등을 통해 청년층과 생애 첫 투표 유권자들이 쉽고 흥미롭게 선거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와 영상 콘텐츠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지역 상권과 상인회 중심의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도 확산하고 있다. 일부 업소에서는 투표확인증이나 투표소 인증사진, 투표 도장 등을 제시한 시민에게 할인 혜택이나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임정호 기자 jh4415@



광주도시공사가 최근 사회 보호계층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정착·지원 커뮤니티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광주도시공사 ‘내 마음의 집수리’ 커뮤니티 활동 주거상향 입주자 50명 초청 마음 건강 교육 진행

광주도시공사(사장 김승남)가 사회보호계층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정착·지원 커뮤니티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20일 광주도시공사 종합주거복지센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광주 서구 시청로 LH광주전남지역본부 3층 세미나실에서 주거상향지원사업 입주자 및 대상자 50명을 초청해 2차 커뮤니티 프로그램인 ‘내 마음의 집수리’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물리적 거주 공간의 제공을 넘어, 1인 가구가 흔히 겪는 심리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정서적 자생력을 높이고자 기획했다.

교육은 양미아 전문 심리상담사를 초청해 참석자들의 우울 척도를 면밀히 검사하고 회복탄력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와 함께 일상 속 기쁨 리스트 작성과 삶의 가치를 성찰하는 사전 연명 의향서 안내 등을 병행해 내면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돌보았다.

더불어 광주도시공사는 정서 지원에 그치지 않고, 다가오는 하절기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에너지 복지 실천도 수반했다. 폭염에 노출되기 쉬운 참석자 전원에게 1인당 1대씩 총 50대의 선풍기를 전달해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했다.

김승남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안정적인 보금자리만큼이나 마음의 건강을 챙기고 이웃과 교류하는 과정이 온전한 자립의 핵심 요소”라며 “앞으로도 사회 보호계층이 우리 사회의 든든한 일원으로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세심하고 촘촘한 주거 복지망을 굳건히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산학협동연구원, 김춘성 조선대 총장 초청 포럼

(사)한국산학협동연구원(이사장 김보곤·원장 양승학)은 20일 광주테크노파크 과학기술동 국제회의실에서 회원과 광주·전남지역 학계·기관·단체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7회 산학협동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김춘성 조선대학교 총장이 ‘글로벌대학 이후, 지역대학의 새로

운 생존전략’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한편 한국산학협동연구원 조찬포럼은 지난 2003년 1월 설립 이후 매월 세 번째 수요일마다 열고 있다. 산업계 CEO와 대학 교수, 경제·산업 분야 전문가 등을 초청해 경제·경영·산업 현안을 공유하는 지역 대표 산학 교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송대용 기자 sdw091@

호남대, 전 메이저리거 추신수 특별강연 개최

26일 문화체육관...도전·슬럼프 극복 경험 공유

호남대학교는 오는 26일 오후 2시 교내 문화체육관에서 전 메이저리거 추신수를 초청해 특별강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보건과학대학 반려동물산업학과 주관으로 마련됐으며, 재학생과 교직원, 수험생, 학부모 등 1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추신수는 “다섯 개의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깨달은 여섯 번째 재능”을 주제로 메이저리거 무대에서 겪은 도전과 실패, 슬럼프 극복 과정과 자기관리, 멘탈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할 계획이다.

특히 메이저리거에서 ‘파이브 톨(Five



-Tool) 선수로 평가 받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실패를 겪는 힘과 꾸준함, 포기하지 않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번 강연 사회는 배우 김재원이 맡으며, 참가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질의응답 시간도 진행된다.

이동우 보건과학대학장은 “학생들이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태도와 회복력을 배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